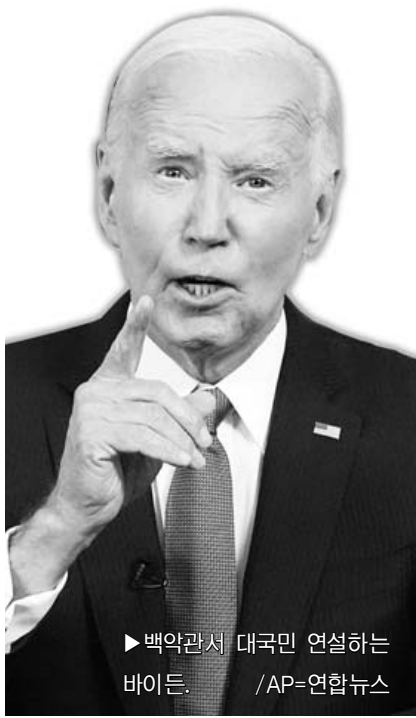


바이든 “통합 위해 재선 포기...퇴임까지 대통령 업무 집중”



대국민연설서 포기 배경 설명...사퇴요구는 일축 “개인적 야심보다 민주주의수호 중요” 충심 역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지시간) “새 세대에 햇살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신의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미국민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용단이 젊은 정치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는 어떤 타이틀 (직책)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거기에는 개인적 야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 자리 (대통령직)를 존중

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자신의 충심을 역설했다.

이는 자신이 자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다는 목표 아래, 자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재선 도전 포기를 결정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후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경험 있고 터프하며 유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위대함은 왕과 독재

자가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통치한다는 데 있다”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권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미국의 이상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구체적인 소임으로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생활) 비용을 계속 낮추고 우리의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것”이라며 “나는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우리의 개인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령(81세)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의혹을 증폭시킨 뒤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지난 198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 이후 50년만이며, 특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보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은 미국 역사상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하마스, 네타냐후 ‘인질석방 집중노력’ 발언에 “거짓말” 비난

美의회연설에 “이스라엘과 미국, 전세계 여론 호도” 주장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을 되찾기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의회연설 발언에 대해 하마스가 거짓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현지시간) 워싱턴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순전한 거짓말이며 이스라엘과 미국, 전세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마스는 “그(네타냐후)는 이집트와 카타르 형제들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도 전쟁을 끝내고 합의에 이르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안보통제권을 갖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구상도 “순전한 망상이자 환상”이라면서 “팔레스타인 인민의 운명과 누가 그들을 통치할 것인지 정할 권리는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정치·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보호해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 고위 당국자 사미 아부 후르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연설은 그가 하마스와의 휴전을 원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문명 간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충돌”로 규정하며 미국의 신속한 군사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인질 석방을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 능력과 가자지구 통치를 소멸시키고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는 그 이하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이었던 지난해 1

0월 7일 이른 오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의 민간인과 외국인, 군인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해 전쟁을 촉발했다. 이후 9개월여간 이어진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선 3만9천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일시휴전이 성사되면서 풀려났지만, 120명 가량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바다로 변한 마닐라 도심

지난 24일 불어닥친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필리핀 마닐라 케손시티 거리가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필리핀을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3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약 60만 명이 발생했다. /EPA=연합뉴스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 간부 5년만 방북”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재정위원장인 국장급 이상 간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했다.

25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총련 재정위원장은 전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갔다.

재정위원장은 조총련에서 ‘금고지 기’로 꼽히는 국장급 간부다.

신문은 “8월 초순까지 북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조총련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방북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북한에 여러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면서 조총련의 허충만 의장과 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북한 왕래도 막아왔다. 다만 이

번에 방북한 재정위원장은 원래 금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신문은 “북한이 올해 들어 남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새로운 방침과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송금 등에 대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총련 계열 학교인 일본 조선대학교 4학년 약 140명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특별허가를 내렸다고 지난 2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왕래가 활발해지면 물자나 자금의 이동을 금지하는 일본 정부의 다른 독자 제재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관계자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갱단 세력 다툼 피해 멕시코 주민들 국경 넘어

이주민 불법 이동을 조장하는 갱단 간 세력 다툼에 일부 멕시코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 남쪽 국경 넘어 과테말라로 피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지시간) 수도 과테말라시 인근 술틀라를 찾은 자리에서 현지 취재진에 “멕시코 주민들이 폭력을 피해 우리 영토로 왔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난민 성격의 이들을 정

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州) 주민 580여명은 최근 남쪽 국경을 넘어 과테말라 우에우에데낭고주(州) 쿠일코 마을에 도착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도 포함된 가족 단위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갱단 폭력 사태에 위협을 느끼고 사실상 ‘강제’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8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